

목차

1. 들어가며
2. 향찰의 어말어미
3. 석독구결의 어말어미
4. ‘只’와 ‘支(支)’의 분포 환경 및 ‘毛叱所只’ 解讀 小考
5. 나오며

1. 들어가며

향가 해독의 역사는 곧 100주년을 맞는다. 향가 해독은 小倉進平(1927)의 ‘鄉歌及び吏讀の研究’와 양주동(1942)의 ‘朝鮮古歌研究’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양주동(1965) 이후 향가 해독은 문법 형태소 해독 중심으로 해독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한 계단씩 연구를 쌓아 가는 과정을 밟아 왔다. 하지만 그 끝이 어디인지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김지오(2024:39 각주 3)는 향가 해독의 어려움을 말한 이탁(1956:446)의 진술 “解讀을 읽어 보면 말이 씨가 먹지 않고 뜻이 一脈貫通되지 않는 데가 많아서 마치 現代의 怪物인 모더니즘의 詩를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을 일으키느니”를 인용하며 그 지난함에 공감하고 있다. 기존의 사회질서·종교·도덕의 전통을 밀반침하고 있던 확실성에 대해 회의를 품은 모더니즘의 사상적 기반을 현대의 괴물로 치환한 이전 인식은 이제 지금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변증(辨證)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불교학, 역사학, 교감학 등 인접 분야와 아우르는 학제적 연구로 이해의 폭을 넓혀 가고 있다.¹⁾

고대국어 연구는 자료의 한계에서 비롯된 가정 중심의 연구에서 석독구결 자료의 출현을 기점으로 하여 형태 분석과 통사적 구성에 대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국어의 전모를 설명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논의에 앞서 향찰(鄉札)과 석독구결(釋讀口訣)의 성격을 살펴보자. 향찰은 향가의 표기 체계이고, 석독구결은 경전을 우리말로 풀어서 읽기 위하여 고안된 구결자 활용 체계이다. 그러므로 고대국어는 한자를 이용한 차자표기 자료로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근원적인 한계를 가진다.

향찰과 석독구결은 표기 체계의 한 종류로서 한자(漢字)를 차용한 차자표기(借字表記) 체계이다.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우리말은 차자표기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고대국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시 언어를 직접 기록한 자료를 논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755), 일부 금석문, 간년이 확실한 목간 기록처럼 시기가 분명한 자료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 자료는 드물어서 이 자료들만으로는 고대국어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차자표기는 우리말의 형태를 파악해서 변환하는 단계를 갖는다. 한글로 표기되어 있는 중세국어 자료는 이 단계가 없이 바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

1) 이러한 흐름과 다른 방향에서 향가를 당시 정서를 오롯이 표현한 시가 예술로서 문학적 상상력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점이 있지만 이를 차자표기 자료에서 찾을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차자표기 자료는 ‘間毛冬留’의 ‘毛’와 같이 글자의 판독 등 어학 이외의 교감학, 문자학, 서지학 등의 기초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기반 위에서 ‘間毛冬留’와 ‘際毛冬留’의 시공간 개념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해독으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 즉 인접 학문 분야의 기초 작업이 잘 이루어져야 궁극적인 해독의 오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이 발표의 논의 대상인 향찰과 석독구결이 표상하는 ‘고대국어’는 국립국어연구원 편(1998)의 방식을 참조한 삼국 시대부터 고려 시대까지의 언어이다. 그 구체적인 대상은 향찰의 경우에는 삼국유사와 균여전의 향가 25수이고, 석독구결의 경우에는 고려시대 자토석독구결 자료 6종이다. 점토석독구결 자료와 고려 말 조선 초기 석독 표현 포함 자료는 제외하였다. 차자표기로 표현된 언어 사실이 당시 언어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지는 당시의 언어가 차자표기로 고정된 시기를 추정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일정 정도 자료가 가지는 보수성에 기대고, 고대국어 자료에 나타나는 어형을 중세국어와 비교하여 고대국어 문법을 파악하는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왔다.

이 발표는 향찰과 자토석독구결의 어말어미에 대한 연구의 최근 현황을 정리하고 여기에 따른 쟁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승재(1998:64)에서는 어말어미에 포함하여 논의하였지만 이 발표에서는 절을 달리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어말어미는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순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향찰과 석독구결에 나타나는 고대국어의 어말어미에 대한 연구는 2019년 구결학회 학술대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졌다.²⁾ 김지오(2019)는 고대국어 연결어미를, 최성규(2019)는 고대국어의 종결어미를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이 발표는 두 선행 연구에 기대어 고대국어 연결어미를 다룬 김지오(2019)의 목록을³⁾ 향가와 석독구결로 나누어 논의하고, 고대국어 종결어미를 다룬 최성규(2019)의 관점에 따라 그 목록을 참조하였다.⁴⁾ 고대국어의 문법과 관련한 어말어미는 이용(2023)에서는 이두의 어말어미 표기자 구분을 따라 종결어미와 연결어미로 나누었다. 전성어미 논의에서는 부사형어미와 관련하여 부사어가 수식하는 대상과 그 지배 영역을 고려하였다. 부사형어미는 기능상 연결어미와 전성어미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2. 향찰의 어말어미

어말어미는 선어말어미와 짝을 이루는 용어이다. 용언에 결합하는 어말어미의 앞의 둘 사이에 결합하는 것이 선어말어미이고, 체언과 결합하는 것이 조사이다. 용어는 단순하지만 이들이 엄밀히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향찰과 석독구결에서 최대한 단순한 어말어미 형태를 찾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향찰의 어말어미를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로

2) 2019년 2월 13일 구결학회 겨울 전국학술대회 기획 주제인 ‘고대국어 문법의 현황과 과제’에서 연결어미, 종결어미, 시상법 선어말어미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논의를 정리하여 김지오(2019)는 연결어미를 최성규(2019)는 종결어미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따라서 이 발표는 목록의 정리와 더불어 향가와 석독구결이라는 장르적 특징이 나타나는 어말어미의 형태를 중심으로 그 형태 분석과 그 형태의 독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3) 김지오(2019:57)의 목록은 선행 연구를 넷으로 나누어 첫째 고대국어 연결어미 목록을 총정리한 연구, 둘째 고대국어 문법 개설 중 연결어미에 대한 기술이 있는 연구, 셋째 향가, 이두, 구결 자료의 해독과 함께 문법 특징들을 언급한 연구, 넷째 고대국어 연결어미 중 특정 어미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정리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향가와 석독구결을 중심으로 이두와 음독구결은 보조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4) 최성규(2019:6)에서는 되도록 결합형보다는 단일형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하여 의존명사와 종결조사 등등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어미구조체는 논의 외로 하였다.

나누어 살펴보자.

이승재(1998)에서는 고대국어 문법 형태를 조사류와 어미류로 대별한 다음, 어미류는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그리고 어말어미를 종결어미와 연결어미로 나누었고 동명사어미는 편의상 어말어미의 일종인 것으로 처리하였다. 여기에서도 어말어미에 대한 일반적인 구분에 따라 향찰의 어말어미를 종결어미와 연결어미로 나누어 살펴본다. 종결어미는 문장의 종결 기능에 따라 평서형, 의문형, 감탄형, 명령형으로 나누고, 여기에 최성규(2019)를 참조하여 원망형을 더하였다. 연결어미는 그 문법 기능에 따라 [대조] [양보], [나열], [가정], [조건], [연접] [계기] [접속], [전체] [이유], [발견] [이유], [배경], [전환] 등으로 구분한 김지오(2019:81)의 분류에 따랐다.

향찰로 표기된 향가는 삼국유사 소재 14수와 균여전 소재 11수를 합하여 총 25수이다. 이 향가들의 향찰 표기 즉 한자로 표기된 우리말에서 어말어미를 분석한 다음, 하나의 어말어미 형태를 포함한 문자를 중심으로, 그 문자가 표상하는 문법 요소 즉 어말어미의 기능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서태룡(1997:695-196)에서는 신라시대의 향가부터 현대국어까지 계속 쓰이는 어말어미를 먼저 정동사어미 ‘-다’, ‘-라’, ‘-가’, ‘-고’, ‘-아/어’, ‘-이’와 동명사어미 ‘-ㄴ’, ‘-ㄴ’, ‘-ㄴ’로 나누었다. 그리고 부동사어미를 4가지로 구분하여 ①‘-고’, ‘-아/어’, ‘-이’, ②‘-다가’, ‘-다’, ③‘-나’, ‘-니’, ‘-닐/늘’, ‘-라>러’, ‘-려’, ‘-며’, ④‘-든/든’, ‘-들>들’, ‘-디’, ‘-디/대’의 목록으로 정리하였다. ①은 정동사어미와 동일한 것으로 ②는 정동사어미를 구성요소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③은 동명사어미를 구성요소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④는 ‘-ㄴ’을 구성요소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국어의 어말어미는 동명사어미 ‘-ㄴ’, ‘-ㄴ’, ‘-ㄴ’과 정동사어미 ‘-다’, ‘-가’, ‘-고’, ‘-아/어’, ‘-이’가 선어말어미, 의존명사, 보조동사, 조사와 통합형을 이루어 기능을 확대하면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정동사어미는 종결 기능을 담당하므로 종결어미로, 부동사어미는 연결 기능을 담당하므로 연결어미로 바꿀 수 있는데 둘 이상의 구성요소가 통합한 것은 통합형 종결어미와 통합형 연결어미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통합형을 제외한 ‘-ㄴ’, ‘-ㄴ’, ‘-ㄴ’과 어미 ‘-다’, ‘-가’, ‘-고’, ‘-아/어’, ‘-이’가 마지막 구성요소로 나타나는 형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대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다음에 제시하는 [표 1]과 [표 2]는 향가 25수의 전체 구문에서 어말어미로 파악할 수 있는 예를 최대한으로 선정한 것이다. 박지용 외(2012)의 순서에 따라 이전 선행연구를 종합한 내용을 참조하였다. 먼저 제목을 제시하고 그 아래에 1열은 고유번호와 해당 행을 숫자로 표시하였다. 제2열은 해당 구문 전체를 제시하였다. 대상 선정에 관한 판단과 관련하여 판정란에 해독이 대체적으로 일치하여 확실한 것은 ◎표와 이견이 약간 있는 것은 ○표를 붙였다. 그리고 의견이 크게 나뉘는 것에는 △표를 하였고, 필자가 연결어미로 새로 판단한 것에는 ☆표를 붙였다. 향가의 해석에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있었다. 이 표는 노래별로 전성어미를 포함한 어말어미의 양태를 구문을 중심으로 먼저 파악하고 해당 노래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평가와 해석이 발표자의 주관에 개입되어 구문 선정과 분석에 자의적인 해석이 포함되었으며, 형태 분석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부족한 거칠고 분석임을 밝혀 둔다.

[표 1] 삼국유사 소재 14수 어말어미 포함 추정 구문 분석

고유번호/행	해당 행	어말어미 (포함) 구성	어말어미 추정 형태	분석 결과	판정
1. 慕竹旨郎歌					
1.1.	去隱春皆理米	隱	-ㄴ	관형사형어미+N	◎
1.1.	去隱春皆理米	米	-ㅁ	연결어미	○
1.2.	毛冬居叱沙哭屋尸以憂音	沙	-아	연결어미	☆
1.2.	毛冬居叱沙哭屋尸以憂音	尸	-ㄷ	관형사형어미+N	◎
1.3.	阿冬音乃叱好支賜烏隱	隱	-ㄴ	관형사형어미+N	◎
1.4.	兒史年數就音墮支行齊	音	-ㅁ	동명사어미+V	☆
1.4.	兒史年數就音墮支行齊	齊	-저	종결어미	○
1.5.	目煙廻於尸七史伊衣	尸	-ㄷ	관형사형어미+N	◎
1.6.	逢烏支惡知作乎下是	惡	-악	연결어미	◎
1.6.	逢烏支惡知作乎下是	下是	-리	종결어미	○
1.7.	郎也慕理尸心未 行乎尸道尸	尸	-ㄷ	관형사형어미+N	◎
1.7.	郎也慕理尸心未 行乎尸道尸	尸	-ㄷ	관형사형어미+N	◎
1.8.	蓬次叱巷中宿尸夜音有叱下是	尸	-ㄷ	관형사형어미+N	◎
1.8.	蓬次叱巷中宿尸夜音有叱下是	下是	-리	종결어미	◎
2. 獻花歌					
2.2.	執音乎手母牛放教遣	手	-손	연결어미	△
2.2.	執音乎手母牛放教遣	遣	-고	연결어미	◎
2.3.	吾盼不喻慚盼伊賜等	賜等	-ㄷ ㄷ	연결어미	◎
2.4.	花盼折叱可獻乎理音如	可	-어(아)	연결어미	◎
2.4.	花盼折叱可獻乎理音如	如	-다	종결어미	◎
3. 安民歌					
3.1.	君隱父也	也	-여(야)	종결어미	◎
3.2.	臣隱愛賜尸母史也	尸	-ㄷ	관형사형어미+N	◎
3.3.	民焉狂尸恨阿孩古爲賜尸知民是 愛尸知古如	恨	-ㄴ	관형사형어미+N	◎
3.3.	民焉狂尸恨阿孩古爲賜尸知民是 愛尸知古如	尸	-ㄷ	관형사형어미+N	◎
3.3.	民焉狂尸恨阿孩古爲賜尸知民是 愛尸知古如	如	-다	종결어미	◎
3.4.	窟理叱大盼生以支所音物生此盼 喰惡支治良羅	以支	-이	부사형어미+支	○
3.4.	窟理叱大盼生以支所音物生此盼 喰惡支治良羅	惡支	-악	연결어미+支	◎
3.4.	窟理叱大盼生以支所音物生此盼 喰惡支治良羅	羅	-라	종결어미	◎
3.5.	此地盼捨遣只於冬是去於丁	遣只	-꼭	연결어미+只	◎
3.5.	此地盼捨遣只於冬是去於丁	丁	-더	종결어미	◎
3.6.	爲尸知國惡支持以	尸	-ㄷ	관형사형어미+N	◎
3.6.	爲尸知國惡支持以	以	-이	부사형어미	○
3.7.	支知古如後句	以支	-이	부사형어미	○
3.7.	支知古如後句	如	-다	종결어미	◎
3.8.	君如臣多支民隱如	如	-다이	부사형어미	○
3.8.	君如臣多支民隱如	多支	-다이	부사형어미	◎
3.8.	君如臣多支民隱如	如	-다이	부사형어미	◎
3.9.	爲內尸等焉國惡大平恨音叱如	等焉	-든	연결어미	◎
3.9.	爲內尸等焉國惡大平恨音叱如	如	-다	종결어미	◎
4. 讚耆婆郎歌					
4.1.	咽鳴爾處米	米	-ㅁ	연결어미	◎
4.2.	露曉邪隱月羅理	隱	-ㄴ	관형사형어미+N	◎

4.3.	白雲音逐于浮去隱安支下	于	-오	부사형어미	◎
4.3.	白雲音逐于浮去隱安支下	隱	-ㄴ	동명사어미+V	☆
4.4.	沙是八陵隱汀理也中	隱	-ㄴ	관형사형어미+N	◎
4.5.	耆郎矣良史是史藪邪	邪	-라	종결어미	◎
4.7.	郎也持以支如賜烏隱	也	-여	종결어미	◎
4.7.	郎也持以支如賜烏隱	以支	-이	부사형어미	◎
4.7.	郎也持以支如賜烏隱	隱	-ㄴ	관형사형어미+N	◎
4.8.	心未際叱胗逐內良齊	齊	-저	종결어미	◎
4.9.	栢史叱枝次高支好	好	-오	부사형어미	○
4.10.	雪是毛冬乃乎尸花判也	尸	-ㄷ	관형사형어미+N	◎
4.10.	雪是毛冬乃乎尸花判也	也	-여	종결어미	◎
5. 處容歌					
5.1.	東京明明月良	期	-이	부사형어미	○
5.2.	夜入伊遊行如可	伊	-이	부사형어미	◎
5.2.	夜入伊遊行如可	如可	-다가	연결어미	◎
5.3.	入良沙寢矣見昆	良沙	-어사	연결어미+沙	○
5.3.	入良沙寢矣見昆	昆	-곤	연결어미	◎
5.4.	脚烏伊四是良羅	羅	-라	종결어미	◎
5.5.	二盼隱吾下於叱古	古	-고	종결어미	◎
5.6.	二盼隱誰支下焉古	古	-고	종결어미	◎
5.7.	本矣吾下是如馬於隱	馬於隱	-마 른/마 른	연결어미	◎
5.8.	奪叱良乙何如爲理古	乙	-ㄴ	동명사어미+격조사	○
5.8.	奪叱良乙何如爲理古	古	-고	종결어미	◎
6. 薯童謠					
6.2.	他密只嫁良置古		-이	부사형어미, ?연결어미+只	☆
6.2.	他密只嫁良置古	良	-아	연결어미	◎
6.2.	他密只嫁良置古	古	-고	연결어미	◎
6.4.	夜矣卯乙抱遣去如	遣	-고	연결어미	◎
6.4.	夜矣卯乙抱遣去如	如	-다	종결어미	◎
7. 禱千手大悲歌					
7.1.	膝盼古召跡	跡	-며	연결어미	◎
7.2.	二尸掌音毛乎支內良	良	-아	연결어미	◎
7.4.	祈以支白屋尸置內乎多	以支	-이	연결어미+支	◎
7.4.	祈以支白屋尸置內乎多	尸	-ㄷ	동명사어미+V	◎
7.4.	祈以支白屋尸置內乎多	多	-다	종결어미	◎
7.6	一等下叱放一等盼除惡支	惡支	-악	연결어미+支	◎
7.7.	二于万隱吾羅	羅	-라	종결어미	◎
7.8.	一等沙隱賜以古只內乎叱等邪	以	-이	부사형어미	○
7.8	一等沙隱賜以古只內乎叱等邪	邪	-라	종결어미	◎
7.9.	吾良遣知支賜尸等焉	知支	-이	부사형어미+支	○
7.9.	吾良遣知支賜尸等焉	尸等焉	-ㄷ ㅗ	연결어미	◎
7.10.	放冬矣用屋尸慈悲也根古	尸	-ㄷ	관형사형어미+N	◎
7.10.	放冬矣用屋尸慈悲也根古	也	-여	종결어미	◎
7.10	放冬矣用屋尸慈悲也根古	古	-고	종결어미	◎
8. 風謠					
8.1.	來如來如來如	如	-다	종결어미	◎
8.1.	來如來如來如	如	-다	종결어미	◎
8.1.	來如來如來如	如	-다	종결어미	◎
8.2.	來如哀反多羅	如	-다	종결어미	◎
8.2.	來如哀反多羅	反	-ㄴ	관형사형어미+N	◎
8.2.	來如哀反多羅	羅	-라	종결어미	◎
8.3.	哀反多矣徒良	反	-ㄴ	관형사형어미+N	◎

8.3.	哀反多矣徒良	良	-라	종결어미	◎
8.4.	功德修叱如良來如	良	-라	연결어미	◎
8.4.	功德修叱如良來如	如	-다	종결어미	◎
9. 願往生歌					
9.2.	西方念丁去賜里遣	遣	-고	종결어미	◎
9.4.	惱叱古音(鄉言云報言也)多可支 白遣賜立	音	-ㅁ	동명사어미+N	△
9.4.	惱叱古音(鄉言云報言也)多可支 白遣賜立	可支	-아	연결어미+支	◎
9.4.	惱叱古音(鄉言云報言也)多可支 白遣賜立	賜立	-쇼서	종결어미	◎
9.5.	誓音深史隱尊衣希仰支	隱	-은	관형사형어미+N	◎
9.5.	誓音深史隱尊衣希仰支	仰支	-이(?)	연결어미+支	◎
9.6.	兩手集刀花乎白良	刀	-오	연결어미	◎
9.6.	兩手集刀花乎白良	良	-아	연결어미	◎
9.8.	慕人有如白遣賜立	如	-다	종결어미	◎
9.8.	慕人有如白遣賜立	賜立	-쇼서	종결어미	◎
9.9.	此身遣也置遣	也	-아	연결어미	◎
	此身遣也置遣	遣	-고	연결어미	◎
9.10.	四十八大願成遣賜去	去	-가	종결어미	○
10. 兜率歌					
10.1.	今日此矣散花唱良	良	-아	연결어미	◎
10.2.	巴寶白乎隱花良汝隱	隱	-ㄴ	관형사형어미+N	◎
10.3.	直等隱心音矣命叱使以惡只	隱	-ㄴ	관형사형어미+N	◎
10.3.	直等隱心音矣命叱使以惡只	惡只	-악	연결어미+只	◎
10.4.	彌勒座主陪立羅良	良	-라	종결어미	◎
11. 祭亡妹歌					
11.2.	此矣有阿米次盼伊遣	米	-ㅁ	연결어미	◎
11.2.	此矣有阿米次盼伊遣	遣	-고	연결어미	◎
11.3.	吾隱去內如辭叱都	如	-다(는)	종결어미+N(?)	○
11.4.	毛如云遣去內尼叱古	遣	-고	연결어미	◎
11.4.	毛如云遣去內尼叱遣	遣	-고	종결어미	◎
11.5.	於內秋察早隱風未	隱	-ㄴ	관형사형어미+N	◎
11.6.	此矣彼矣浮良落尸葉如	良	-아	연결어미	◎
11.6.	此矣彼矣浮良落尸葉如	尸	-ㄷ	관형사형어미+N	◎
11.6.	此矣彼矣浮良落尸葉如	如	-이	부사형어미	◎
11.7.	一等隱枝良出古	隱	-ㄴ	관형사형어미+N	◎
11.7.	一等隱枝良出古	古	-고	연결어미	◎
11.8.	去奴隱處毛冬乎丁	隱	-ㄴ	관형사형어미+N	◎
11.8.	去奴隱處毛冬乎丁	丁	-더	종결어미	◎
11.9.	阿也 彌陀刹良逢乎吾	乎	-ㄷ(∅)	관형사형어미+N	○
11.10.	道修良待是古如	良	-아	연결어미	◎
11.10.	道修良待是古如	如	-다	종결어미	◎
12. 曄星歌					
12.2.	遊烏隱城叱兮良望良古	隱	-ㄴ	관형사형어미+N	◎
12.2.	遊烏隱城叱兮良望良古	古	-고	연결어미	◎
12.3.	倭理叱軍置來叱多	多	-다	종결어미	◎
12.4.	烽燒邪隱邊也戴耶	隱	-ㄴ	관형사형어미+N	◎
12.4.	烽燒邪隱邊也戴耶	耶	-라	종결어미	◎
12.5.	三花矣岳音見賜烏尸聞古	尸	-ㄷ	동명사어미+V	◎
12.5.	三花矣岳音見賜烏尸聞古	古	-고	연결어미	◎
12.6.	月置八切爾數於將來尸波衣	尸	-ㄷ	관형사형어미+N	◎
12.7.	道尸掃尸星利望良古	尸	-ㄷ	관형사형어미+N	◎
	道尸掃尸星利望良古	古	-고	연결어미	◎

12.8.	彗星也白反也人是有姪多	也	-야/여	종결어미	◎
12.8.	彗星也白反也人是有姪多	也	-아	종결어미	◎
12.8.	彗星也白反也人是有姪多	多	-다	종결어미	◎
12.9.	達阿羅浮去伊叱等邪	邪	-라	종결어미	◎
12.10.	此也友物北所音叱慧叱只有叱故	音	-ㅁ	동명사어미+격조사	○
12.10.	此也友物北所音叱慧叱只有叱故	故	-고	종결어미	◎
13. 怨歌					
13.1.	物叱好支栢史	好支	-오	부사형어미+支	◎
13.2.	秋察尸不冬爾屋支墮米	屋支	-옥	연결어미+支	◎
13.2.	秋察尸不冬爾屋支墮米	米	-ㅁ	연결어미	◎
13.3.	汝於多支行齊教因隱	多支	-아(∅)	연결어미+支	☆
13.3.	汝於多支行齊教因隱	齊	-저	종결어미	◎
13.3.	汝於多支行齊教因隱	因	-ㄴ	관형사형어미+N	◎
13.4.	仰頓隱面矣改衣賜乎隱冬矣也	隱	-ㄴ	관형사형어미+N	◎
13.4.	仰頓隱面矣改衣賜乎隱冬矣也	隱	-ㄴ	관형사형어미+N	◎
13.4.	仰頓隱面矣改衣賜乎隱冬矣也	也	-야	종결어미	◎
13.5.	月羅理影支古理因淵之叱	因	-ㄴ	관형사형어미+N	◎
13.6.	行尸浪ㅁ阿叱沙矣以支如支	尸	-ㄴ	관형사형어미+N	◎
13.6.	行尸浪ㅁ阿叱沙矣以支如支	以支	-이	부사형어미+支	◎
13.6.	行尸浪ㅁ阿叱沙矣以支如支	如支	-이(∅)	부사형어미+支	◎
13.7.	兒史沙叱望阿乃	乃	-나	연결어미	◎
13.8.	世理都ㅁ之叱逸烏隱第也	隱	-ㄴ	관형사형어미+N	◎
13.8.	世理都ㅁ之叱逸烏隱第也	也	-여	종결어미	◎
14. 遇賊歌					
14.2.	兒史毛達只將來吞隱日	達只	-아	연결어미+只	☆
14.2.	兒史毛達只將來吞隱日	隱	-ㄴ	관형사형어미+N	◎
14.3.	遠鳥逸ㅁㅁ過出知遣	遣	-고	연결어미	◎
14.4.	今吞蔽未去遣省如	遣	-고	연결어미	◎
14.4.	今吞蔽未去遣省如	如	-다	종결어미	◎
14.5.	但非乎隱焉破ㅁ主	隱	-ㄴ	동명사어미+보조사	◎
14.6.	次弗ㅁ史內於都還於尸朗也	尸	-ㄴ	관형사형어미+N	◎
14.6.	次弗ㅁ史內於都還於尸朗也	也	-여	종결어미	◎
14.7.	此兵物叱沙過乎	乎	-ㄴ	동명사어미+V	◎
14.8.	好尸曰沙也內乎吞尼	尸	-ㄴ	관형사형어미+N	◎
14.8.	好尸曰沙也內乎吞尼	乎	-ㄴ	관형사형어미+N	◎
14.8.	好尸曰沙也內乎吞尼	尼	-니	연결어미	○
14.9.	唯只伊吾音之叱恨隱潛陵隱	隱	-ㄴ	관형사형어미+N	◎
14.10.	安支尙宅都乎隱以多	隱	-ㄴ	동명사어미+계사	◎
14.10.	安支尙宅都乎隱以多	多	-다	종결어미	◎

[표 2] 균여전 소재 普賢十願歌 11수 어말어미 포함 추정 구문 분석

고유번 호/행	해당 행	어말어미 (포함) 구성	어말어미 추정 형태	분석 결과	판 정
15. 禮敬諸佛歌					
15.2.	慕呂白乎隱仏体前衣	隱	-ㄴ	관형사형어미+N	◎
15.3.	拜內乎隱身萬隱	隱	-ㄴ	관형사형어미+N	◎
15.4.	法界毛叱所只至去良	良	-라	종결어미	◎
15.6.	刹刹每如邀里白乎隱	隱	-ㄴ	관형사형어미+N	◎
15.7.	法界滿賜隱仏体	隱	-ㄴ	관형사형어미+N	◎
15.8.	九世尽良礼為白齊	良	-아	연결어미	◎
15.8.	九世尽良礼為白齊	齊	-저	종결어미	◎
15.10.	此良夫作沙毛叱等耶	耶	-라	종결어미	◎

16.	稱讚如來歌				
16.2.	南无佛也白孫舌良衣	也	-여	종결어미	◎
16.2.	南无佛也白孫舌良衣	孫	-손	연결어미	○
16.4.	一念惡中涌出去良	良	-라	종결어미	◎
16.5.	塵塵虛物叱邀呂白乎隱	隱	-ㄴ	관형사형어미+N	◎
16.6.	功德叱身乙對爲白惡只	惡只	-악	연결어미+只	○
16.7.	際于萬隱德海盼	隱	-ㄴ	관형사형어미+N	○
16.8.	間毛冬留讚伊白制	留	-오	부사형어미	◎
16.8.	間毛冬留讚伊白制	制	-저	종결어미	◎
16.10.	毛等尽良白乎隱乃兮	良	-아	연결어미	◎
16.10.	毛等尽良白乎隱乃兮	隱	-ㄴ	관형사형어미+N	◎
16.10.	毛等尽良白乎隱乃兮	兮	-여	종결어미	○
17.	廣修供養歌				
17.1.	火條執音馬	音	-아	연결어미	△
17.2.	佛前灯乙直体良焉多衣	焉	-ㄴ	관형사형어미+N	◎
17.2.	佛前灯乙直体良焉多衣	良焉多衣	-란디	연결어미	◎
17.3.	灯炷隱須弥也	也	-여	종결어미	◎
17.4.	燈油隱大海逸留去耶	耶	-라	종결어미	◎
17.5.	手焉法界毛叱色只爲旖	旖	-며	연결어미	◎
17.7.	法界滿賜仁仏体	仁	-ㄴ	관형사형어미+N	○
17.8.	仏仏周物叱供爲白制	制	-저	종결어미	◎
17.9.	阿耶 法供沙叱多奈	奈	-나	연결어미	◎
17.10.	伊於依波最勝洪也	也	-여	종결어미	◎
18.	懺悔業障歌				
18.1.	顛倒逸耶	耶	-아	연결어미	◎
18.2.	菩提向焉道乙迷波	焉	-ㄴ	관형사형어미+N	◎
18.2.	菩提向焉道乙迷波	波	-아	연결어미	◎
18.3.	造將來臥乎隱惡寸隱	隱	-ㄴ	동명사어미+V	◎
18.3.	造將來臥乎隱惡寸隱	寸	-ㄴ	동명사어미+격조사	◎
18.4.	法界餘音玉只出隱伊音叱如支	玉只	-옥	연결어미+只	◎
18.4.	法界餘音玉只出隱伊音叱如支	如支	-다	종결어미+支	○
18.5.	惡寸習落臥乎隱三業	寸	-ㄴ	관형사형어미+N	◎
18.5.	惡寸習落臥乎隱三業	隱	-ㄴ	관형사형어미+N	◎
18.6.	淨戒叱主留卜以支乃遣只	以支	-이	부사형어미+支	○
18.6.	淨戒叱主留卜以支乃遣只	遣只	-고	연결어미+只	○
18.8.	十方叱佛體闕遣只賜立	遣只	-고	연결어미+只	○
18.8.	十方叱佛體闕遣只賜立	賜立	-쇼서	종결어미	◎
18.10.	來際永良造物捨齊	良	-아	연결어미	◎
18.10.	來際永良造物捨齊	齊	-저	종결어미	◎
19.	隨喜功德歌				
19.2.	緣起叱理良尋只見根	良	-아	연결어미	◎
19.2.	緣起叱理良尋只見根	尋只	-아(∅)	연결어미+只	◎
19.2.	緣起叱理良尋只見根	根	-곤	연결어미	○
19.4.	吾衣身不喻仁人音有叱下呂	仁	-ㄴ	관형사형어미+N	◎
19.4.	吾衣身不喻仁人音有叱下呂	下呂	-리	종결어미	◎
19.5.	修叱賜乙隱頓部叱吾衣修叱孫 丁	乙	-ㄹ	동명사어미+격조사	○
19.6.	修叱賜乙隱頓部叱吾衣修叱孫 丁	孫丁	-손더	연결어미	◎
19.6.	得賜伊馬落人米無叱昆	賜	-ㄹ(∅)	관형사형어미+N	○
19.6.	得賜伊馬落人米無叱昆	昆	-곤	연결어미	◎
19.8.	不冬喜好尸置乎理叱過	尸	-ㄹ	동명사어미+V	◎
19.8.	不冬喜好尸置乎理叱過	過	-가(/?-아)	종결어미	○
19.9.	伊羅擬可行等	可	-아	연결어미	◎

19.9.	伊羅擬可行等	等	-든	연결어미	◎
19.10.	嫉妬叱心音至刀來去	刀	-도	연결어미	◎
19.10.	嫉妬叱心音至刀來去	去	-가	종결어미	◎
20. 請轉法輪歌					
20.1.	彼仍反隱	隱	-ㄴ	관형사형어미+N	◎
20.3.	吾焉頓叱進良只	良只	-아	연결어미+只	◎
20.4.	法雨乙乞白乎叱等耶	耶	-라	종결어미	◎
20.5.	無明土深以埋多	以	-이	부사형어미	◎
20.5.	無明土深以埋多	多	-다	종결어미	◎
20.6.	煩惱熱留煎將來出米	米	-ㅁ	연결어미	◎
20.7.	善芽毛冬長乙隱	乙	-ㄷ	동명사어미+격조사	◎
20.8.	衆生叱田乙潤只沙音也	潤只	-어(∅)	연결어미+只	◎
20.8.	衆生叱田乙潤只沙音也	也	-여	종결어미	◎
20.9.	菩提叱菓音烏乙反隱	隱	-ㄴ	관형사형어미+N	◎
20.10.	覺月明斤秋察羅波處也	斤	-ㄴ	관형사형어미+N	◎
20.10.	覺月明斤秋察羅波處也	也	-여	종결어미	◎
21. 請佛住世歌					
21.2.	必于化緣盡動賜隱乃	乃	-나	연결어미	◎
21.3.	手乙寶非鳴良尔	良尔	-아금/-아곰	연결어미	○
21.4.	世呂中止以友白乎等耶	耶	-라	종결어미	◎
21.6.	向屋賜尸朋知良閭尸也	尸	-ㄷ	관형사형어미+N	◎
21.6.	向屋賜尸朋知良閭尸也	良	-아	연결어미	◎
21.6.	向屋賜尸朋知良閭尸也	尸	-ㄷ	동명사어미+계사	◎
21.6.	向屋賜尸朋知良閭尸也	也	-라	종결어미	◎
21.7.	伊知皆矣爲米	皆矣	-ㄱ/ㄴ	부사형어미	◎
21.7.	伊知皆矣爲米	米	-ㅁ	연결어미	◎
21.8.	道尸迷反群良哀呂舌	反	-ㄴ	관형사형어미+N	◎
21.8.	道尸迷反群良哀呂舌	呂舌	-ㄷ썌	종결어미	◎
21.9.	吾里心音水清等	等	-든	연결어미	◎
21.10.	佛影不冬應爲賜下呂	下呂	-리	종결어미	◎
22. 常隨佛學歌					
22.2.	皆往焉世呂修將來賜留隱	焉	-ㄴ	관형사형어미+N	◎
22.2.	皆往焉世呂修將來賜留隱	隱	-ㄴ	관형사형어미+N	◎
22.4.	吾焉頓部叱逐好友伊音叱多	逐好	-오	부사형어미	◎
22.4.	吾焉頓部叱逐好友伊音叱多	多	-다	종결어미	◎
22.5.	身靡只碎良只塵伊去米	良只	-아	연결어미+只	○
22.5.	身靡只碎良只塵伊去米	米	-ㅁ	연결어미	◎
22.6.	命乙施好尸歲史中置	尸	-ㄷ	관형사형어미+N	◎
22.7.	然叱皆好尸卜下里	皆	-ㄱ/ㄴ	부사형어미	◎
22.7.	然叱皆好尸卜下里	尸	-ㄷ	동명사어미+V	◎
22.7.	然叱皆好尸卜下里	下里	-리	종결어미	◎
22.8.	皆佛體置然叱爲賜隱伊留兮	隱	-ㄴ	관형사형어미+N	◎
22.8.	皆佛體置然叱爲賜隱伊留兮	兮	-여	종결어미	◎
22.9.	佛道向隱心下	隱	-ㄴ	관형사형어미+N	◎
22.10.	他道不冬斜良只行齊	良只	-아	연결어미+只	◎
22.10.	他道不冬斜良只行齊	齊	-저	종결어미	◎
23. 恒順衆生歌					
23.2.	迷火隱乙根中沙音賜焉逸良	隱	-ㄴ	동명사어미+격조사	◎
23.2.	迷火隱乙根中沙音賜焉逸良	焉	-ㄴ	관형사형어미+N	◎
23.2.	迷火隱乙根中沙音賜焉逸良	良	-라	종결어미	◎
23.3.	大悲叱水留潤良只	良只	-아	연결어미+只	◎
23.4.	不冬菱玉內乎留叱等耶	乎	-ㄴ	동명사어미+V	◎
23.4.	不冬菱玉內乎留叱等耶	耶	-라	종결어미	◎
23.6.	爲乙吾置同生同死	乙	-ㄷ	관형사형어미+N	◎
23.8.	佛體爲尸如敬叱好叱等耶	如	-다	종결어미	◎

23.8.	佛體爲尸如敬叱好叱等耶	耶	-라	종결어미	◎
23.9.	衆生安爲飛等	等	-든	연결어미	◎
23.10.	佛體頓叱喜賜以留也	也	-여	종결어미	◎
24.	普皆廻向歌				
24.1.	皆吾衣修孫	孫	-손	연결어미	◎
24.2.	一切善陵頓部叱廻良只	良只	-아	연결어미+只	◎
24.4.	迷反群无史悟內去齊	反	-ㄴ	관형사형어미+N	◎
24.4.	迷反群无史悟內去齊	史	-이	부사형어미	◎
24.4.	迷反群无史悟內去齊	齊	-저	종결어미	◎
24.5.	佛體叱海等成留焉日尸恨	焉	-ㄴ	관형사형어미+N	◎
24.6.	懺爲如平仁惡寸業置	仁	-ㄴ	관형사형어미+N	◎
24.6.	懺爲如平仁惡寸業置	寸	-ㄴ	관형사형어미+N	◎
24.7.	法性叱宅阿叱寶良	良	-라	종결어미	◎
24.8.	舊留然叱爲事置耶	耶	-라	종결어미	◎
24.9.	禮爲白孫隱佛體刀	隱/孫隱	-ㄴ/-손	관형사형어미+N	◎
24.10.	吾衣身伊波人有叱下呂	下呂	-리	종결어미	◎
25.	總結無盡歌				
25.1.	生界盡尸等隱	等隱	-든	연결어미	◎
25.2.	吾衣願盡尸日置仁伊而也	尸	-ㄴ	관형사형어미+N	◎
25.2.	吾衣願盡尸日置仁伊而也	也	-여	종결어미	◎
25.3.	衆生叱邊衣于音毛	毛	-오	연결어미	◎
25.4.	際毛冬留願海伊過	留	-오	연결어미	◎
25.4.	際毛冬留願海伊過	過	-가(/?-아)	종결어미	◎
25.5.	此如趣可伊羅行根	可	-아	연결어미	◎
25.5.	此如趣可伊羅行根	根	-근/곤	연결어미	◎
25.6.	向乎仁所留善陵道也	仁	-ㄴ	관형사형어미+N	◎
25.6.	向乎仁所留善陵道也	也	-여	종결어미	◎
25.8.	又都佛體叱事伊置耶	耶	-라	종결어미	◎
25.9.	普賢叱心音阿于波	波	-아	연결어미	◎
25.10.	伊留叱餘音良他事捨齊	良	-아	연결어미	◎
25.10.	伊留叱餘音良他事捨齊	齊	-저	종결어미	◎

[표 1]과 [표 2]는 각각 삼국유사 소재 향가와 균여전 소재 향가의 향찰 표기로 이루어진 어말어미를 분석한 것이다. 어말어미가 분석되는 구조체가 포함된 행을 제시한 후, 해당 어말어미가 포함된 차자 표기 즉 향찰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독음을 한글로 표시한 후 그것을 기능에 따라 종결어미, 연결어미, 부사형어미, 동명사어미, 관형사형어미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판정이 이전 선행 연구와 발표자의 판단에 따라 ◎, ○, △, ☆로 등급을 표시하였다. 관형사형어미는 수식을 받은 명사가 있으므로 뒤에 +N으로 표기하였다. 동명사어미는 후속하는 요소가 동사일 때는 +V로 이 밖에 격조사와 계사가 결합할 때는 +격조사, +계사로 표시를 덧붙였다. 전체적인 조망을 위한 거친 작업으로 형태 분석의 정밀하지 않아 그 분석의 판단 근거와 문법적 기능에 대한 설명이 미비하다.

2.1. 향찰의 종결어미

위 표의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종결어미의 목록을 제시할 수 있다. 종결어미는 현행 학교 문법은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의 5가지 문장종결법 체계를 따랐으나 청유형의 경우는 학교 문법과 달리 원망(願望)형으로 다루고자 한다.⁵⁾ 향찰의 종결어미를 평서, 의문, 명령 등의 문장을 종결하는 문법 요소의 기능을 살펴본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평서

5) 이에 해당하는 형태는 향찰의 ‘齊, 制’와 석독구결의 ‘ㄷ’이다.

형 어미는 ‘-다’이다. ‘-다’는 향찰에서는 ‘如’, ‘多’로 석독구결에서는 ‘ㄹ’로 나타난다. 중세국어 즉 15세기 이후 한글 문헌에 잘 나타나지 않는 종결어미로는 ‘-저’가 있다.⁶⁾

향찰로 표현된 향가의 종결어미는 최성규(2019:47-48)에 따라 기능별로 기능이 대체로 분명한 것으로 ①평서형의 之(다), 如(다), 多(다) ②의문형의 古(고), 故(고), 丁(더), 下是(아리?), ③명령형의 立(서) ④원망형의 齊(저) ⑤감탄형 羅(라), 叱等邪(쓰야)로 정리하였다. 여기에서는 향찰이라는 표기 체계의 관점에서 신라와 고려로 즉 삼국유사와 균여전 소재의 향가로 나뉜 두 시대의 목록을 통합하여 제시한다.

(1) 향찰의 종결어미⁷⁾

가. 평서형: 如, 多, 羅, 也, 耶

나. 의문형: 古, 故, 去, 丁, 下是, 下呂,

다. 명령형: 立, 良

라. 원망형: 齊, 制

마. 감탄형: 羅, 叱等邪, 也, 耶, 良, 叱等耶, 等耶, 丁, 兮,

(1가)는 향찰 ‘如’, ‘多’, ‘羅’로 표기한 평서형 종결어미 ‘-다’, ‘-라’이다. 이 종결어미는 선행 표현을 단순히 끝맺는다. 평서형 종결어미 ‘-라’는 ‘-다’와 짝을 이루어 평서형과 명령형에 쓰인다. 이 기능 구별은 이 어말어미 앞에 어떠한 선어말어미가 오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종결어미 ‘-라’를 동명사어미 ‘-ㄴ’에 종결어미 ‘-아’가 결합한 것으로 분석할 가능성도 있다.⁸⁾ 서태룡(1997:649)에서는 향찰 ‘-尸如’를 내포문에 나타나는 의문문어미 ‘-다’의 존재와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尸如’ 짝으로 ‘*-隱如’를 설정하고 여말 선초 음독구결의 ‘ㄹ(ㄴ다)/ㄹ(ㄴ다)’를 참조하여 16세기 이후의 구결 ‘-隱多’와 ‘-乙多’이 하라체 의문형으로 쓰인 점을 들어 이들이 동명사어미 ‘-ㄴ’, ‘-ㄴ’ 다음에 의존명사 ‘ㄷ’와 하라체 종결어미 ‘-아’가 통합된 것으로 보았다. 이 논의를 수용하면 하라체 종결어미 ‘-아’로 귀결된다. 약속문의 ‘-마’도 마찬가지로 하라체 종결어미 ‘-아’를 분석할 수 있다.

(1나)는 향찰 ‘古, 故, 去, 丁, 下是, 下呂’로 표기된 의문형 종결어미 ‘-고’, ‘-가’, ‘-리’이다. ‘-고’와 ‘-가’는 설명과 판정으로 나뉘는 의문형 종결어미로 중세국어 음운론적 이형태로 ‘-오’와 ‘-아’가 있으나 향찰 표기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향찰 ‘丁’로 표기된 의문형 종결어미 ‘-더’는 재분석하면 ‘ㄷ+이+어’로 마지막 구성 요소인 ‘어’가 의문형 종결어미의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향찰 ‘下是, 下呂’로 표기된 ‘-리’는 의문형 종결어미로서 ‘-ㄴ’에 ‘-이’가 결합된 것으로 ‘-이’는 하라체 종결어미로 평서형 종결어미와 의문형 종결어미의 기능을 갖는다. 이에 대해 ‘-리잇가’, ‘-리잇고’의 ‘잇가/잇고’가 절단형이나 ‘-리라’에서 ‘-라’가 절단된 것으로 보아 고대국어 종결어미에 절단형을 상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6) 박진호(1998:123)은 평서형 종결어미의 ‘-저’를 구결 자료에서는 보이지 않고 향찰과 이두에서만 보이는 것으로 서술하고, 향가의 예로 廣修供養歌의 ‘供爲白制(供ᄃᆞᆫᄃᆞᆫ)’와 稱讚如來歌의 讚伊白制(기리ᄃᆞᆫᄃᆞᆫ), 禮敬諸佛歌의 ‘禮爲白齊(禮ᄃᆞᆫᄃᆞᆫ)’를 제시하고 후대에는 주로 ‘齊’로 표기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논의한 바 있다.

7) 최성규(2019:47-48)에서 기능이 불확실한 것에 △표를, 해독이 어렵듯한 것에 *표를 달았다. ‘△*耳(?)’, ‘△*下里(아리?)’, ‘△*(?)’를 불확실 목록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에서는 마지막 구성요소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였다.

8) 廣修供養歌 ‘火條執音馬’의 ‘執音馬’에 대한 해독은 대체로 ‘잡음에, 잡으매, 자브며, 잡음 말, 자브물, 자브마, 자브마, 주므르마’로 나누어 볼 ‘執音馬’의 마지막 구성요소를 약속문의 ‘-마’로 보고, 이 ‘마’는 동명사어미 ‘-ㄴ’에 종결어미 ‘-아’가 결합한 요구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1다)는 향찰 ‘立, 良’로 표기한 명령형 종결어미이고, ‘-셔’와 ‘-라’이다. ‘賜立’의 앞에 선 어말어미가 아닌 어말어미가 연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立’ 앞에 결합하는 ‘賜’는 동사 어간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立’만으로 종결어미로 파악하였다. 이 시기에는 ‘賜’가 어간에서 선어말어미로 문법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 예일 수도 있다.

(1라)는 향찰 ‘齊, 制’로 표기된 원망형 종결어미 ‘-저’이다. 원망형은 청유형보다는 약하게 화자의 바람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를 기원/원망형을 부르기도 하나, ‘-저’는 원망의 의미를 갖는 종결어미로 평서형과 의미 기능이 크게 다르지 않다. 서태룡(1997:655)은 ‘-저’가 화자의 바람을 나타내는 보조동사 ‘지-’에 평서형 종결어미 ‘-어’가 결합하여 원망의 기능을 나타낸 것으로 그 의미 기능을 설명하였다.

(1마)는 향찰 ‘羅, 叱等邪, 也, 耶, 良, 叱等耶, 等耶, 丁, 兮’로 표기된 감탄형 종결어미 ‘-라’, ‘-아’이다. 종결어미 ‘-아/어’는 해라체에서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감탄형, 청유형을 모두 나타낼 수 있다.

어말어미 중 종결어미의 기능을 가진 것을 분석하면 결국, ‘-다’, ‘-라’, ‘-아/어’, ‘-이’, ‘-고’, ‘-가’의 단순한 1음절 형태로 남게 된다. 이들 어미들은 향찰 표기에서는 한자음을 빌려서 표현한 것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형태소로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1음절의 중복 표기, 어간을 나타내는 한자로 연결어미까지 표현하는 ‘∅’ 표기(또는 소위 첨사 앞의 어간 표기) 등은 이러한 형태소 인식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2. 향찰의 연결어미

연결어미는 두 개 이상의 문장이 결합될 때 나타난다. 복합문이 내포와 접속의 두 가지 방법으로 구성되는 것은 보편적인 언어 현상이다. 그러나 국어 어미의 형태는 내포문어미와 접속어미, 내포문과 접속문, 내포와 접속의 구별이 단순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내포문만을 구성하는 고유한 어미나 접속문만을 구성하는 고유의 어미가 보이지 않고, 접속문을 구성하는 어미는 부사절을 구성하기도 한다. 우리가 연결어미라고 부를 수 있는 접속문을 구성하는 통합형 어미는 종결어미, 동명사어미, 선어말어미, 조사, 의존명사, 보조동사 등을 그 구성요소로 갖고 있다.

서태룡(1998:435-437)은 이러한 연결어미 즉 접속어미의 목록을 마지막 구성 요소를 기준으로 ①종결어미와 일치하는 것, ②조사와 일치하는 것, ③의존 명사나 기타의 다른 것 3종류로 나누어 그 구성 요소별로 분석과 재분석을 실시하였다.⁹⁾ 이 기준에 따라 향가와 석독구결의 어말어미를 분류해 보고자 한다. 향찰의 연결어미는 김지오(2019)의 논의에 제시된 의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¹⁰⁾

9) 이에 해당하는 목록은 ①유형에 ‘-고’, ‘-으려고’, ‘-느라고’, ‘-아/어’, ‘-(이)라’, ‘-은지라’, ‘-을지라’, ‘-으나’, ‘-으나마’, ‘-거나’, ‘-으러’, ‘-으며’, ‘-고서’, ‘-아서/어서’, ‘-으면서’, ‘-고자’, ‘-다’, ‘-아다/어다’, ‘-이’, ‘-게’, ‘-으니’, ‘-듯이’, ‘-다시피’, ‘-거니’, ‘-으려니’, ‘-느니’, ‘-노니’, ‘-더니’, ‘-느라니’, ‘-노라니’, ‘-더라니’, ‘-다가’, ‘-아다가/어다가’, ‘-으니까’, ‘-지’, ‘-든지’, ‘-은지’, ‘-을지’, ‘-음’ ②유형에 ‘-든’, ‘-거든’, ‘-으면’, ‘-느라면’, ‘-노라면’, ‘-(았/었)더라면’, ‘-곤’, ‘-거늘’, ‘-은들’, ‘-(았/었)던들’, ‘-으매’, ‘-기에’, ‘-은데’, ‘-건대’, ‘-을진대’, ‘-을새’, ‘-으므로’, ‘-기로’, ‘-거니와’, ‘-으려니와’, ‘-아도/어도’, ‘-더라도’, ‘-을지라도’, ‘-아야/어야’, ‘-(았/었)자’, ‘-아야만/어야만’, ‘-다만’, ‘-지만’, ‘-건만’, ‘-으련만’, ‘-더니만’ ③유형에 ‘-은바’, ‘-은즉’, ‘-을망정’, ‘-을지언정’, ‘-되’, ‘-듯’, ‘-도록’, ‘-을수록’, ‘-으랴’, ‘-자’, ‘-자마자’가 있다.(서태룡 1998:436-437)

10) 향가에서 기능에 따른 분류로 [원인], [인용] [상술]이 나타나지 않는다. [원인]은 석독구결의 ‘1 ㅅ ㅁ’로, [인용] [상술]은 석독구결의 ‘-1, -ㅍ(ㅍㅈ)’로 나타나므로 향찰 표기에 단순한 빈칸으로 나타났거나 해당 언어 표현이 표상하는 시기의 한국어의 의미 기능이 덜 발달하였을 가능성

(2) 향찰의 연결어미(김지오 2019: 81 향가 정리: 한글 표기 형태 제외)

가. [대조] [양보]: (隱)乃, 奈, 而也

나. [나열]: 旅

다. [가정]: 尸等隱/等

라. [조건]: [시간한정] 隱多衣, [시간선후] 根

마. [연접] [계기] [접속]: 良(+沙, +只, +尔), 刀, 毛, 好, 玉, 伊, 以, 爾, 古(遣?)(+只)

바. [전제] [이유]: 遣, 米

사. [발견] [이유]: 昆

아. [배경]: 尸也, (隱)乙

자. [전환]: 如可

(2) 목록 즉 향찰로 표기된 글자에서 분석한 연결어미를 추정 독음을 정리하면 ‘-나’, ‘-마리여’, ‘-며’, ‘-ㄹ든/든’, ‘-ㄴ다기’, ‘-아’, ‘-오/우’, ‘-이’, ‘-고’, ‘-견/겨’, ‘-뭇’, ‘-곤’, ‘-ㄹ여’, ‘-늘/늘’, ‘-다가’이다. 이들을 ‘-ㄴ+-아’ ‘말+이+-어’, ‘-ㄱ+이+-어’, ‘-ㄹ+ㄷ+ㄴ’, ‘-ㄴ+ㄷ+아기’, ‘-아’, ‘-오/우’, ‘-이’, ‘-고’, ‘기+-어+ㄴ’, ‘-기+-어’, ‘-ㄱ+익’, ‘-고+ㄴ’, ‘-ㄹ+이+-어’, ‘-ㄴ+을/-ㄴ+을’, ‘-다+가’로 형태를 분석하면 마지막 구성 요소는 어미인 ‘-아/어’, ‘-이’, ‘-고’와 조사인 ‘익’, ‘ㄴ’, ‘을’, 첨사인 ‘가’로 나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연결어미 또한 마지막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되는 형태소의 기본 의미의 조합으로 위의 문법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¹¹⁾

2.3. 향찰의 전성어미

[표 1]과 [표 2]에서 관형사형어미, 동명사어미, 부사형어미로 구분된 예들이 전성어미로 분석될 수 있는 예들이다. 이승재(1998:71)에서 동명사어미 ‘ㄴ, ㄹ, ㄱ’이 동사를 명사화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동시에 시상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동명사어미는 독자적으로 연결어미로 쓰일 수 있다. 그런데 고대국어에서 이들은 동사의 논항이 되는 등의 기능을 같이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형사형어미와 구분하여 동명사어미로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시상적 기능으로 ㄴ의 기연, ㄹ의 미연, ㄱ은 완료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완료의 ‘ㄱ’과 미완료의 ‘ㄴ, ㄹ’이 먼저 분기하고 ‘ㄴ’과 ‘ㄹ’은 ‘미완료 기연’을 ‘ㄹ’은 ‘미완료 미연’을 표상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파악하였다.¹²⁾ 전성어미 ‘-ㄴ’과 ‘-ㄹ’, ‘-ㄱ’으로 분석되고, 이

이 있다. 김지오(2019:81 표)에 같이 제시된 이두 자료를 볼 때 이두와 석독구결의 일치도가 더 높으므로 이두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현재로서는 이두가 고행을 간직하려는 보수적인 표기 양태를 보이므로 단순한 빈칸으로 보는 편이 좋을 듯하다.

11) 각각의 기본의미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서태룡(1988)을 참조할 수 있다.

12) 여기에서 논의하는 시제와 상의 개념은 하정수(2018:3)에서 시제는 ‘절이나 문장이 나타내는 사태(state-of-affairs)가 발생한 시간적 위치(temporal position)를 문법적 수단(grammatical means)을 통해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어떤 것의 위치를 나타내려면 기준점이 필요한데, 사태의 발생 시점(時點)을 나타낼 때에는 화자가 해당 문장을 발화하는 순간(발화시, speech time)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그 외의 순간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전자를 절대 시제(absolute tense), 후자를 상대 시제(relative tense)라고 하는데 절대 시제는 화시적 범주(deictic category)이다. 즉 어떤 화시의 중심(deictic center)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것의 위치나 정체가 정해지고, 상황에 따라 화시의 중심이 달라지면 그 어떤 것의 위치나 정체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 시제는 상과 분명하게 구별된다.’ 상은 ‘사태의 시간적 구조나 전개 양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된 문법 범주이다. 시제의 주된 기능이 사태를 시간 축 상의 특정 위치에 위치 짓는 것인데 비해, 상은 그러한 시간적 위치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 사태의 발생 시점이나 시간 축상의 위치 보다는 그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이 관건이 된다. 상을 논의할 때에는, 특정 언어의 특정상 표지의

들은 주로 관형사형어미로 체언과 결합하여 후행하는 체언을 수식하거나 동명사어미로 문장에서 체언의 기능을 한다. 부사형어미는 부사가 수식하는 대상과 부사형어미(부사파생접미사)의 지배 영역을 고려하여 기능상 연결어미와 전성어미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이 발표에서는 부사형어미를 따로 제시하고 이를 전성어미에 포함하였다.

3. 석독구결의 어말어미

3.1. 석독구결의 종결어미

3) 석독구결의 종결어미(최성규 2019:48 고려 시대 목록에서 정리)

가. 평서형: ㅁ, ㅃ

나. 의문형: ㅁ/ㄴ, ㅅ, ㅈ?

다. 명령형: ㅅ, ㅈ

라. 원망형: ㅅ

마. 감탄형: ㅁㅈ/ㅁㅈ, ㅈㅈ

3.2. 석독구결의 연결어미

4) 석독구결의 연결어미(김지오 2019:81, 석독구결 부분, 한글 표기 형태 제외)¹³⁾

가. [대조] [양보]의 (ㅁ)ㄴ, ㅈㅈ, [나열]의 ㅈ, ㅅ,

다. [가정]: ㅈㅈㅈ/ㅈㅈㅈ, ㅈㅈㅈ, ㅈㅈㅈㅈㅈ

라. [조건]: [시간한정] ㅈㅈㅈ, [시간선후] ㅁㅈ, ㅁㅈㅈㅈ, ㅈㅈㅈ, ㅈㅈㅈㅈ, ㅈㅈㅈㅈ

마. [연접] [계기] [접속]: ㅈ(ㅈ/ㅈ)(ㅈㅈ, ㅈㅈ), ㅈ/ㅈ/ㅈ, ㅈ, ㅁ(ㅈㅈ)

바. [원인]: ㅈㅈㅈ

사. [전제] [이유]: ㅈㅈ?

아. [발견] [이유]: ㅁㅈ, ㅁㅈㅈㅈ

자. [인용] [상술]: ㅈㅈ, ㅈㅈ(ㅈㅈㅈ), ㅈㅈㅈ, ㅈㅈㅈ

차. [배경]: ㅈㅈ, ㅈㅈ(ㅈㅈㅈ, ㅈㅈ), ㅈㅈ

카. [소망]: ㅈ, ㅈㅈ

3.3. 석독구결의 전성어미

-이후 생략-

4. ‘只’와 ‘支(支)’의 분포 환경과 ‘毛叱所只’

4.1. ‘只’와 ‘支(支)’의 분포 환경

동사구 연결 구성에 나타나는 ‘支’, ‘只’의 분포 환경을 보다 상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전 연구의 지정문자설 등을 고려해 보면 ‘支’, ‘只’의 기능은 그 독음은 차치하고 그

특정 센스에 해당하는 의미 명칭과 범언어적 상 범주(cross-linguistic aspectual category)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범언어적인 상 범주로서 [완료상(perfect aspect)]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완료상 표지는 과거 사태가 현재 관여성을 지님을 나타낸다. 완료상과 더불어 범언어적인 상 범주로서 [진행상]을 설정할 수 있다.’고 진술한 맥락에서 ‘시상’은 시제와 상을 아우르는 좁은 의미와 서법과 양태를 아우르는 넓은 의미가 있는데 이 두 개념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드러나지 않는 것이 고대국어 한 특징이라 보고 용어를 유연하게 사용하였다. [완료], [미완료], [기연], [미연]으로 구분하고, [완료]와 [미완료]는 화자의 인식과 관련된 시상적 요소를, [기연], [미연]은 사건 내부의 시간과 관련된 시상적 요소를 표현한 것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3) 김지오(2019:81)의 석독구결의 목록에서 [전환]의 의미기능을 가지는 항목이 없다. 향가의 ‘如可’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순한 빈칸인지 아니면 문법 변화의 모습을 보여 주는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는 여말 선초 음독구결 ‘ㅈㅈㅈ’를 향가의 ‘如可’와 직접 연결하는 것과 관련된다.

것이 분포하는 위치에서 ‘강세 보조사’로서 투명한 역할이 아닌 다른 문법적인 기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현수(2023)에서는 향가의 ‘支’, ‘只’와 석독구결의 ‘ㄷ’, ‘ㅅ’가 그 분포와 기능이 유사함을 근거로 그 독음을 ‘ㄱ/기’로 해독하고 강세 보조사 ‘-기’의 표기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한 연구가 있다. 그 기능이 김지오(2024)에서는 이 논의를 수용하여 도천수대비가에 4회 출현하는 ‘支’를 모두 ‘ㄱ/기’로 해독하였다. 먼저 ‘只’의 분포 환경을 살펴보자.

4.1.1. ‘只’의 분포 환경

‘只’는 삼국유사 소재 향가에 7회, 균여전 소재 향가에 16회 합하여 총 23회 출현한다.

(5) 삼국유사 소재 향가의 ‘只’

- 가. 一等沙隱賜以古只內乎叱等邪阿邪也<도천수대비가 9>
- 나. 直等隱心音矣命叱使以惡只<도솔가 2>
- 다. 他密只嫁良置古<서동요 2>
- 라. 此地盼捨遣只於冬是去於丁<안민가 5>
- 마. 兒史毛達只將來吞隱日逸遠鳥逸□□過出知遣<우적가 2>
- 바. 唯只伊吾音之叱恨隱溍陵隱安支尙宅都乎隱以多<우적가 7>
- 사. 此也友物北所音叱慧叱只有叱古<혜성가 10>

(6) 균여전 소재 향가의 ‘只’

- 가. 法界毛叱所只至去良<예경제불가 4>
- 나. 手焉法界毛叱色只爲跡<광수공양가 5>
- 다. 一切善陵頓部叱廻良只<보개회향가 2>
- 라. 身塵只碎良只塵伊去米<상수불학가 5>
- 마. 身塵只碎良只塵伊去米<상수불학가 5>
- 바. 他道不冬斜良只行齊<상수불학가 11>
- 사. 緣起叱理良尋只見根<수회공덕가 2>
- 아. 仙伊衆生毛叱所只<수회공덕가 3>
- 자. 法界餘玉只出隱伊音叱如支<참회업장가 4>
- 차. 淨戒叱主留卜以支乃遣只<참회업장가 6>
- 카. 十方叱仙體關遣只賜立<참회업장가 8>
- 타. 吾焉頓叱進良只<청전법륜가 3>
- 파. 衆生叱田乙潤只沙音也<청전법륜가 8>
- 하. 功德叱身乙對爲白惡只<칭찬여래가 6>
- 거. 必只一毛叱德置<칭찬여래가 10>
- 너. 大悲叱水留潤良只<항순중생가 3>

(5)와 (6)에서 단어와 조사의 일부분으로 해독되는 (5가)의 ‘古只-’, (5바)의 ‘唯只’와 (6가)와 (6아)의 ‘毛叱所只’ (6나) ‘毛叱色只’와 (6거)의 ‘必只’를 제외하면 17개의 목록을 선정할 수 있다. (5다)의 ‘密只’는 ‘密’을 ‘그속-’의 용언 활용형으로 (5마)이 ‘毛達只’은 ‘모르-’의 용언 활용형으로 볼 가능성이 있어 남겨 두었다. 이 목록을 ‘只’가 포함된 어미구조체로 판단하고, 각 행의 마지막에 ‘只’이 나타나는 (5나), (6다), (6차), (6타), (6하), (6너)는 다음 동사구가 출현하는 행까지 추가하여 (7)로 정리하였다.

(7) 향가의 ‘只’ 포함 어미구조체

가. 直等隱心音矣命叱使以惡只 彌勒座主陪立羅良<도솔가 2, 3>

나. 他密只嫁良置古<서동요 2>

다. 此地盼捨遣只於冬是去於丁<안민가 5>

라. 兒史毛達只將來吞隱日逸遠鳥逸□□過出知遣<우적가 2>

마. 此也友物北所音叱慧叱只有叱古<혜성가 10>

바. 一切善陵頓部叱廻良只 衆生叱海惡中 迷反群无史悟內去齊<보개회향가 2, 3, 4>

사. 身靡只碎良只塵伊去米<상수불학가 5>

아. 他道不冬斜良只行齊<상수불학가 11>

자. 緣起叱理良尋只見根<수회공덕가 2>

차. 法界餘玉只出隱伊音叱如支<참회업장가 4>

카. 淨戒叱主留卜以支乃遣只 今日部頓部叱懺悔 十方叱仏體闕遣只賜立<참회업장가 6, 7, 8>

타. 十方叱仏體闕遣只賜立<참회업장가 8>

파. 吾焉頓叱進良只 法雨乙乞白乎叱等耶<청전법륜가 3, 4>

하. 衆生叱田乙潤只沙音也<청전법륜가 8>

거. 功德叱身乙對爲白惡只 際于萬隱德海盼 間毛冬留讚伊白制<칭찬여래가 6, 7, 8>

너. 大悲叱水留潤良只 不冬菱玉內乎留叱等耶<향순중생가 3, 4>

‘只’가 같은 행에 있는 (7나), (7마), (7아), (7자), (7차), (7타), (7하)는 ‘只’ 뒤에 바로 용언으로 해독되는 ‘嫁-’, ‘有-’, ‘行-’, ‘見-’, ‘出-’, ‘賜-’, ‘沙音-’이 결합되어 있다. (7다)는 의문사가 ‘於冬是’ 뒤에 용언 ‘去-’가 (7라)는 ‘只’ 뒤에 바로 ‘將來’가 결합하고 있다. (7사) 塵伊 뒤에 ‘去-’가 결합되어 있다. 앞의 예들은 모두 동일한 주어를 갖는 동사구의 연결이다. (7다)의 의문사 앞뒤 동사구의 주어(또는 행위주)가 같다. (7라)는 ‘將來’가 미래의 의미 기능을 가지므로 뒤에 바로 동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7사)는 의미상 몸(身)이 먼지(塵)로 변하는 것이므로 동사구의 주어를 동일성이 있다고 상정할 수 있다. 이처럼 행 중간에 있는 ‘只’는 주어 또는 행위주가 같은 동사임을 표지하는 기능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부사로 해석되는 (7나)의 ‘密只’는 ‘그속-’의 주어인 ‘他’와 ‘嫁’의 주어가 동일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해석은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다. 이때는 ‘密只’ 전체를 부사로 보아 ‘只’를 어휘의 일부분으로 보거나 ‘他密只’를 부사절로 보아 이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제 ‘只’가 행의 마지막에 있는 6개의 예들을 살펴보자. (7가)는 후행하는 행의 ‘彌勒座主’가 목적어로 쓰여 ‘只’가 포함된 동사구가 후행 동사구와 동일한 주어를 갖는다. (7바)는 후행하는 ‘衆生叱海惡中’이 처격 부사구로 ‘廻-’ 동사구의 주어가 뒤에 이어지는 동사구 ‘迷-’의 주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7카), (7거)는 한 행 전체가 각각 처격 명사구와 대격 명사구로 되어 있어 2행을 지나 동사 ‘闕-’과 ‘讚-’까지 이어진다. 여기에서도 ‘只’ 어미구조체가 포함된 동사구와 동일한 주어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7너)는 ‘只’ 어미구조체의 주어와 다음 행의 ‘留-’의 주어가 동일하다. ‘大悲叱水’를 의미상 주어로 보아 ‘潤-’와 ‘留-’가 동일한 주어를 갖고, ‘不冬菱-’는 부정 표현 부사구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단어의 일부가 아닌 어미구조체에 나타나는 ‘只’는 그 독음과 상관 없이 선행하는 동사구와 후행하는 동사구의 (의미상) 주어 또는 행위주가 같음을 나타내는 문법 표지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표지 앞의 어말어미의 위치임을 나타내므로 ‘只’에는 연결어미와 종결어미가 오게 된다.

향찰에 나타나는 일부 ‘只’를 ‘其’의 훈독에서 유래한 ‘저’로 읽어 그에 따른 해독을 시도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예로 어간 말음이 어말어미에 연음되어 표기된 (7자)의 ‘尋只’(차저

/차자/찾아)와 (7하)의 ‘潤只’(저저/젓어)를 들 수 있다.¹⁴⁾

4.1.2. ‘支(支)’의 분포 환경

지금까지 ‘支/支’는 ‘허자(虛字)’, ‘지정문자’, ‘파생접미사’, ‘말음첨기’ 등으로 그 기능을 파악하고 그 독음을 ‘Ø, 기/히, 디, ㅣ, ㅈ(ㅎ, ㅅ, ㅊ)’ 등으로 제시하였다. 문현수(2023)은 ‘支/支’의 기능을 석독구결의 ‘호’와 대조하여 상세히 살피고, 이를 삼국유사 소재 향가에 ‘只’ 대신에 ‘支’가 강세 보조사 ‘-ㄱ’의 표기에 이용된다고 파악하고 향가의 ‘只’의 ‘支/支’을 공히 ‘기/기’로 해독하였다. 김지오 외(2024:55-56)에서 도천수관음가에 4번 나오는 ‘支/支’에 대한 논의에서 향가에서 모두 27번 출현하는 ‘支/支’를 그 출현 환경과 빈도를 근거로 이체자 또는 통용자로 처리함이 타당함을 밝혔다. 그리고 ‘支/支’에 대하여 남풍현(2012)의 독음 ‘디’를 배제하고 문현수(2023)의 독음 ‘ㄱ/기’를 선택하였다. 이에 따라 도천수대비가의 2행 ‘毛乎支內良’, 4행 ‘祈以支白屋尸’, 6행 ‘一等盼除惡支’, 9행 ‘遺知支賜尸等焉’을 각각 ‘모독누아’, ‘빌악’, ‘덜악’, ‘기턱실악’으로 해독하였다. 김지오 외(2024: 56) [표 1]의 출현 환경과 빈도에서 선접 형태는 어간(+접미사), 계사, 연결어미, 종결어미, 명사 등으로 제시하고, 후접 형태로는 선어말어미, ‘ㅎ-’, 어말어미를 제시하고 그 빈도와 대표 사례를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支/支’가 포함된 어미구조체 전체의 맥락을 고려하여 단어의 일부 구성요소గా 아닌 예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행 중간에 있는 경우와 행 끝에 있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支/支’는 주로 삼국유사 소재 향가에 나타나고, 균여전 소재 향가는 참회업장가의 2회뿐이다.

다음 (8)의 목록은 27개 중에서 단어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우적가 7>의 ‘安支尙宅’, <원가 5>의 ‘影支’, <찬기과랑가 3>의 ‘安支下’, <처용가 6>의 ‘誰支下’의 <안민가 6>의 ‘國惡支’의 ‘支/支’ 5개를 제외한 총 22개의 목록이다. 그리고 ‘支/支’행의 마지막에 끝나는 예는 그 다음 행을 연속하여 제시하였다. <안민가 7>의 ‘支地古如後句’은 기존 연구의 분절수정을 수용하여 앞 행에 붙여 제시한다. ‘支/支’가 포함된 어미구조체에 밑줄을 그었다.

(8) 향가의 ‘支/支’ 포함 어미구조체

- 가. 二是掌音毛乎支內良<도천수대비가 2>
- 나. 祈以支白屋尸置內乎多<도천수대비가 4>
- 다. 一等下叱放一等盼除惡支 二于萬隱吾羅<도천수대비가 7, 8>
- 라. 吾良遺知支賜尸等焉<도천수대비가 10>
- 마. 窟理叱大盼生以支所音物生此盼噉惡支治良羅<안민가 4>
- 바. 窟理叱大盼生以支所音物生此盼噉惡支治良羅<안민가 4>
- 사. 爲尸知國惡支持以 支知古如後句<안민가 6, 7>
- 아. 君如臣多支民隱如<안민가 10>
- 자. 物叱好支栢史<원가 1>
- 차. 秋察尸不冬爾屋支墮米<원가 2>
- 카. 汝於多支行齊教因隱<원가 3>
- 타. 阿叱沙矣以支如支 兒史沙叱望阿乃<원가 7, 8>

14) 향가와 이두에 공히 나타나는 차자표기 ‘只’는 ‘其’의 생획자로 시작하여 음독자와 훈독자로 같이 쓰이다가 한자 ‘只’의 영향으로 ‘지’의 음독을 겸하게 되었다. 생획 이전의 원자 ‘其’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면서 음독자로서만 기능하게 된다. 따라서 이전 시대 향가와 이두, 구결에서 ‘只’는 이전 시대 ‘其’의 생획(生劃)이라는 원자의 개념이 남아 있는 때까지는 훈독 즉 훈가(訓假)의 ‘저’의 독음을 가진 것으로 보았다.

파. 阿叱沙矣以支如支 兒史沙叱望阿乃<원가 7, 8>
 하. 惱叱古音多可支白遣賜立<원왕생가 4>
 거. 誓音深史隱尊衣希仰支 兩手集刀花乎白良願往生願往生<원왕생가 5, 6>
 너. 郎也持以支如賜烏隱<찬기과랑가 7>
 더. 栢史叱枝次高支好<찬기과랑가 10>
 러. 阿冬音乃叱好支賜烏隱<모죽지랑가 3>
 머. 兒史年數就音墮支行齊<모죽지랑가 4>
 버. 逢烏支惡知作乎下是<모죽지랑가 6>
 서. 法界餘玉只出隱伊音叱如支 惡寸習落臥乎隱三業<참회업장가 4, 5>
 어. 淨戒叱主留卜以支乃遣只<참회업장가 6>

(8가)의 ‘毛乎支’는 후행하는 ‘內-’를 선어말어미 기능과 유사한 동사로 보고 이 목록에 포함하였다. (8가)의 문맥을 보면 ‘支’에 선행하는 동사구의 주어 또는 행위주와 ‘支’에 연결되어 후행하는 동사구의 주어 또는 행위주가 서로 다를 수 있다. 또한 (8나)의 ‘祈以支’와 후행하는 용언 ‘白-’, (8라)의 ‘遣知支’와 후행하는 용언 ‘賜-’, (8마)의 ‘生以支’와 후행하는 용언 ‘喰-’, (8바)의 ‘喰惡支’와 후행하는 용언 ‘治-’, (8아)의 ‘多支’와 후행하는 용언 ‘如-’, (8자)의 ‘好支’와 다음 행에 후행하는 용언 ‘爾-’, (8차)의 ‘爾屋支’와 후행하는 용언 ‘墮-’, (8카)의 ‘多支’와 후행하는 용언 ‘行-’, (8타)의 ‘以支’와 후행하는 용언 ‘如-’, (8파)의 ‘如支’와 다음 행에 후행하는 용언 ‘望-’, (8하)의 ‘可支’와 후행하는 용언 ‘白-’, (8거)의 ‘仰支’와 다음 행에 후행하는 용언 ‘集刀-’, (8너)의 ‘持以支’와 후행하는 용언 ‘如-’, (8더)의 ‘高支’와 후행하는 용언 ‘好-’, (8러)의 ‘好支’와 후행하는 용언 ‘賜-’, (8머)의 ‘墮支’와 후행하는 용언 ‘行-’, (8서)의 ‘如支’와 후행하는 용언 ‘惡-’, (8어)의 ‘卜以支’와 후행하는 용언 ‘乃-’의 관계에서 ‘支’가 포함된 선행 어미구조체와 후행하는 동사구는 그 주어와 행위주가 서로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

(8다)의 ‘除惡支’는 후행하는 ‘于-’를 용언 어간으로 보면 ‘除-’의 주어는 ‘一’, ‘于-’의 주어는 ‘二’로 서로 다르게 된다. (8마)와 (8바)는 3개의 동사구 ‘生-’과 ‘喰-’과 ‘治-’이 연속되는데 이들의 주어가 첫 번째는 ‘窟理’ 또는 ‘窟理叱大盼’을 목적어로 하는 사동주로 두 번째는 ‘此盼’을 목적어로 하는 행위주(百姓)로, 세 번째는 ‘통치의 행위주’로 서로 다르다. (8사)의 ‘持以支’와 후행하는 ‘知古如’의 관계는 ‘知-’의 주어는 [‘持-’의 주어가 ‘持-’]를 목적어로 하는 구조로 ‘持-’와 ‘知-’의 주어는 서로 같지 않다. (8버)의 ‘逢烏支’와 후행하는 용언 ‘惡-’ 또는 ‘作-’와 서로 다르다. ‘惡知’를 의문사로 보느냐 동사로 보느냐 하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뿐 두 동사구의 연속에서 선행 동사구와 후행 동사구의 주어는 서로 다르다. 따라서 ‘支’는 ‘只’와 동일한 환경에서 나타나는 표지이지만 동사구 연결에서 각 동사구의 주어와 행위주가 서로 다르거나 같음을 표시할 때 나타나는 표지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따라서 이들이 수의적으로 나타나고 그 기능이 투명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또한 ‘支/支’이 주어 표지가 다른 동사구 연결에 결합하기 때문에 ‘只’가 포함된 동사구보다 부사구처럼 해석되기가 쉽다.

4.2. ‘毛叱所只’ 解讀 小考

향가에 3번 나타나는 ‘毛叱所只’는 김지오(2019:62)에서 이전의 [도달]의 ‘ㄷ’으로 해독한 양주동(1965)의 논의를 배제하고, 박재민(2002나: 17-18)의 제안을 받아들여 ‘毛叱所只’을 ‘頓’의 15세기의 훈 ‘모로기(물록)’에 해당하는 ‘못속’으로 해독하여 ‘두루, 다’의 뜻을 갖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향가에 나타난 ‘毛叱所只’의 3개를 전후 문맥을 참조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석독구결에 나타나는 ‘毛’가 포함된 ‘毛ッー’ 구문, ‘毛ッ巴ハ’, ‘毛ッホリ’를 참조하여 향가의 ‘毛叱所只’을 살펴보자.

(9) 향가의 ‘毛叱所只’

가. 拜內乎隱身萬隱 法界毛叱所只至去良 塵塵馬洛仏体叱刹亦 <禮敬諸佛歌 3, 4, 5>

가. 瞻拜唯應遍十方 一一塵塵諸佛國 重重刹刹衆尊堂<崔行歸의 漢譯詩 2, 3, 4>

한시 번역: 우러러 절하오니 두루十方세계 비취오시라! 한 티끌, 티끌마다 부처님의 나라며 곳곳의 절마다 온갖 불당이옵니다.

나. 緣起叱理良尋只見根 仏伊衆生毛叱所只 吾衣身不喻仁人音有叱下呂<隨喜功德歌 2, 3, 4>

나. 同體元來普法門 生外本無餘佛義 我邊寧有別人論<崔行歸의 漢譯詩 2, 3, 4>

한시 번역: 體를 같이해 원래 법문에 포섭됩니다. 삶 너머에는 본디 부처님 뜻 어디에 없으니 내게 남과 다르다 논할 것이 어찌 있겠습니까?

다. 燈油隱大海逸留去耶 手焉法界毛叱色只爲旂 手良每如法叱供乙留 <廣修供養歌 4, 5, 6>

다. 油如大海水洪澄 攝生代苦心常切 利物修行力漸增<崔行歸의 漢譯詩>

한시 번역: 기름은 큰 바다의 물결처럼 일렁일렁 중생을 건지고 괴로움 대신할수록 이 마음은 늘 간절해지고, 만물을 이롭게 하고 수행을 닦을수록 나의 힘은 점점 불어갑니다.

(9다)의 ‘毛叱色只’은 제3자 ‘色’을 ‘所’의 오자로 보고 예 3개를 같은 형태로 보아 논의하고자 한다. (9가)는 ‘法界 이르는’ 내용이므로 ‘毛叱所只’은 동사구 ‘至-’를 수식하는 기능을 갖는다. 최행귀의 번역 한시에 ‘唯應遍’의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두루’에 해당하는 ‘遍’으로 보는 것이 무난하지만 ‘唯應’이 당위적 행위를 표현하는 부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9나)는 ‘毛叱所只’가 ‘衆生’과 ‘吾’ 사이에 있다. 이는 두 대상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구역인왕경의 ‘毛ッホリ’가 기입된 ‘相’의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9다)는 ‘毛叱所只’이 후행하는 동사구 앞에 부사어 기능을 하는 위치에 나타난다. (9가)와 같이 ‘두루, 다’의 뜻으로 수식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후행하는 동사구 ‘爲-’로서 대동사 또는 부사 파생접사의 기능을 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번역 한시에서도 중생을 괴로움을 대신한다는 표현이 있으므로 논의할 만하다. 이때도 ‘毛叱所只’은 ‘두루, 다’를 표현한 부사, 또는 두 대상 사이를 관계를 표현한 다른 부사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별도로 어근으로서 파생접사 ‘毛ッ’이 결합하여 용언의 어간을 나타낼 수 있다.

향가의 ‘毛叱所只’과 관련하여 그 음상과 글자 자수가 유사한 석독구결의 예들을 살펴보자. <자비도량참법>에는 ‘毛ッー’ 시작되는 능력 부정 구문이 3회 나타나고, 구역인왕경에서는 ‘相’에 기입된 ‘毛ッホリ’ 1회, 경문 ‘斯’에 기입된 ‘毛ッ巴ハ’이 2회가 나타난다. 이들은 아직까지 해독되지 못하였다. 향가의 ‘毛叱所只’와 석독구결의 ‘毛’가 포함된 구문의 관련성을 살펴보자.

(10) 석독구결의 ‘毛’ 포함 구문

가. 교감본: 閻羅大王 昔 毘沙國 王 王リ 爲 入ッ ナリ 維陀始王 乙 與セッ 共セ 戰 兵 力 如 及 不毛ッホリ 因 誓願 立 立リ 丁 <D자비 19:16-18>

현대어역: 이때에 世界의 그 땅은 六種으로 震動한다. 그때에 모든 大衆은 모여서 함께 다 그렇게 의심을 내어 제각기 서로 말하되 四無所畏이며 十八不共法이며 五眼이며 法身이신 大覺世尊은

- 20 -

- 국립국어연구원(1998),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3-고대국어』, 국립국어연구원.
- 김완진(1980),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지오(2019), 고대국어 연결어미 연구의 현황과 과제, 『口訣研究』 43, 口訣學會, 55-87.
- 김지오, 최연식, 김성주(2024), <禱千手大悲歌>의 해독과 해설, 『口訣研究』 52, 口訣學會, 37-76.
- 南豊鉉(1999), 『국어사를 위한 구결연구』, 태학사.
- 南豊鉉(2000), 『이두연구』, 태학사.
- 남풍현(2012), 「古代 韓國語의 如實法 動詞 ‘支/디’와 ‘多支/다디’에 대하여」, 『口訣研究』 29, 口訣學會, 247-280.
- 문현수(2023), 「향가와 석독구결에서 쓰이는 ‘支’와 ‘只’의 통용성」, 『口訣研究』 51, 口訣學會, 5-35.
- 박재민(2002), 普賢十願歌 難解句 5題, 『口訣研究』 10, 口訣學會, 143-175.
- 박재민(2017), 『신라 향가 변증』, 태학사.
- 박재연(2019), 한국어 어미의 의미, 집문당.
- 박지용 외 편(2012), 『향가 해독 자료집』,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 박진호(1998), 고대 국어 문법, 국립국어연구원 편,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고대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121-205.
- 박진호(2016), 문법, 『신라의 언어와 문학 -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연구 총서16』,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서중학(1995), 『이두의 역사적 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 서태룡(1997), 어말어미의 변화, 『국어사연구』, 태학사. 645-699.
- 서태룡(1998), 접속어미의 형태, 『문법 연구와 자료』, 435-464.
- 梁柱東(1965/1983), 『增訂 古歌研究』, 일조각.
- 이 용(2023), 어말어미 표기자료 본 이두의 변천, 『口訣研究』 51, 口訣學會, 155-185.
- 李承宰(1995), 동명사어미의 역사적 변화, 『국어사와 차자표기』, 태학사.
- 이승재(1998), 고대 국어 형태, 국립국어연구원 편,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고대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41-75.
- 장경준(2022), 자토석독구결 전산입력 자료(sktot_2022_09).
- 장윤희(2006), 고대국어 파생접미사 연구, 『國語學』 47, 國語學會, 91-144.
- 장윤희(2010), 중세국어 연결어미 형성의 문법사, ‘-오디, -은디, -은대’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38, 한국어문교육학회, 61-90.
- 전기량(2020). 자토석독구결에서 종결을 나타내는 ‘-ㅅ/ㅆ(여)’와 ‘-ㅣ(다)’의 용법과 그 변화, 『口訣研究』 44, 口訣學會, 141-179.
- 정렬모(1965), 『향가연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9, 한국문화사 영인]
- 鄭在永(1998), 고려시대의 {-이} 부사와 부사형, 『국어 어휘의 기반과 역사』, 태학사.
- 최성규(2019), 고대국어 종결어미 연구의 현황과 과제, 『口訣研究』 43, 口訣學會, 5-53.
- 하정수(2019), 고대국어 시상법 선어말어미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구결학회, 별지1-23.
- 황선엽(2010), 향가의 연결어미 ‘-아’ 표기에 대하여, 『口訣研究』 25, 口訣學會, 83-105.
- 황선엽 · 이진경 · 하귀녀 외(2009), 『釋讀구결사전』, 박문사.